

##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도 교육청 ‘도 1권역’ 종합우수 평가의 주역

### 문 용 주 전라북도 교육감

지난 10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 1권역’ 종합우수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취임한 문용주 교육감의 치밀한 문제의식과 참신한 혁신 의지 덕분이다.

문교육감은 취임 원년,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받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타 시도 교육청 개혁에 모범이 되기도 했다.

평소 소신있고 깔끔하고 통찰력있는 교육과정 정립에도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문

교육감은, 2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학생들이 나라 발전과 건전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문교육감은 특히 학생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도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검진 차원의 학생병리검사를

초등학교 4학년 부터 3년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공헌했다.

항상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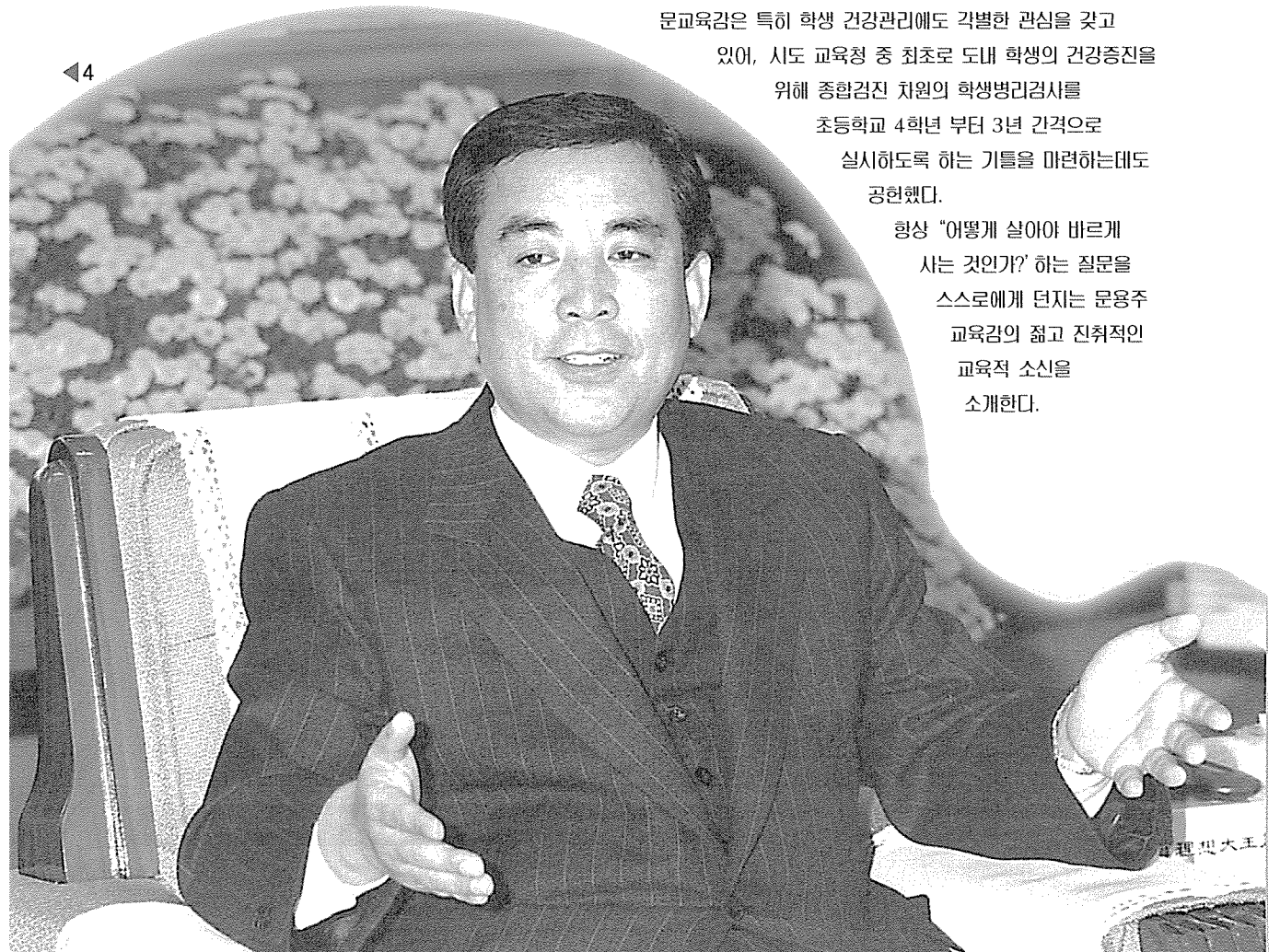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문용주

교육감의 젊고 진취적인

교육적 소신을

소개한다.



▶ 평소 학생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만큼 도내 학생 건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어느 시도보다도 확고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적인 큰 틀의 보건사업이 과거의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위주에서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사업으로 전환되는 변환의 시점에서,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도 학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비전염성 질환인 성인병 검진 사업의 확대 추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시하고 있던 소변, 결핵, 혈액형 검사와 병행하여 성인병을 조기발견, 예방·관리하고자 간기능, 빈혈, 고지혈, 콜레스테롤 검사를 비롯한 5개 항목의 혈액검사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 종합검진 차원의 학생 병리검사를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나아가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까지 3년 간격의 주기로, 연차적인 학생 병리검사의 기틀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 현재 학생 건강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다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 학생들의 외관상 체격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각종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으로 식습관이 편식위주로 치우치면서 영양상태가 다소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미래의 꿈나무에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의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 예방관리하고자 유관 보건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학생병리검사를 유형별로 개발, 여기에 수반되는 정책적 지원조치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학생 건강관리 사업을 미래지향적 우선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올바른 교육실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의 비본질적, 비본래적 행태를 바로잡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6개분야 31개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첫째 교육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 둘째, 학생들에게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시책, 셋째, 잘못된 교육현장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애국심을 고양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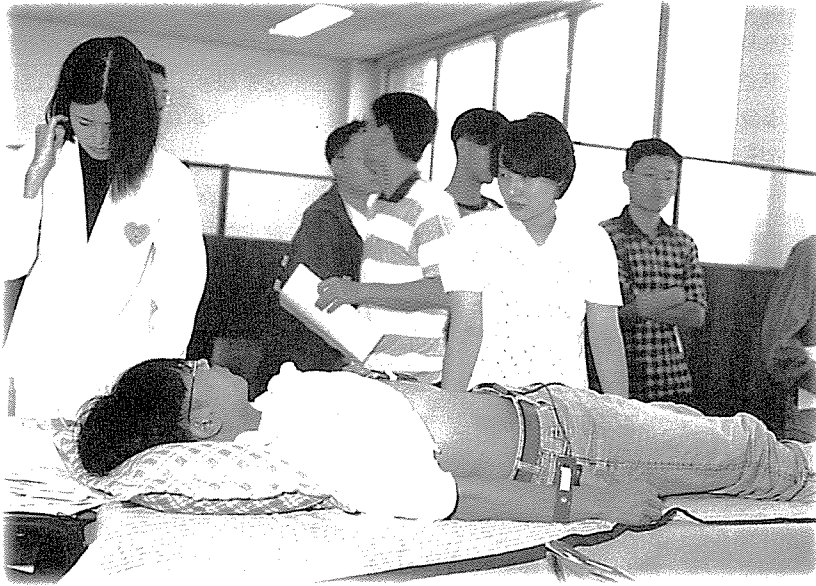
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내보내 그들의 지식, 문화 특히 경제적인 부를 대한민국으로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언어인 '생활 영어 구사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보통신 운용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힘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강건한 체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줄넘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창의성과 고등정신 그리고 풍부한 인간정신을 길러주기 위하여 독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비물질적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즉 예술을 포함한 문화, 종교 등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음악과 시 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력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유한 전통 예술과 문화에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참여하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중·고등학교의 자율·보충·심화 학습을 본래의 목적대로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을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으로 전환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복교육의 지향점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 요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액과외나 촌지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액과외 문제는, 현재 입시제도도 문제지만 교육을 보는 눈, 즉 교육관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입신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제 학교가 달라져야 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문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제도도 무시험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학교문화,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새학교 문화 창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학교 문화 창조운동』은 첫째, 날로 황폐화, 비윤리화 되어 가는 학생문화의 종식을 위한, 학생들의 바른 심성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운동'이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다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족문화 계승발전 운동'이기도 합니다.

둘째, 학교현장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학교현장의 민주화란, 학교경영자와 교사간의 교육행정의 민주화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행위의 민주화며, 학생과 학생간의 학

교생활의 민주화입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 교육 문화의 바른 정착 운동입니다.

이제 학생의 적성과 능력, 그들의 욕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곡된 교육관으로 학생들을 병들게 하지 말고 그들 자신의 세계를 가꿀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제 학생 모두가 인정을 받고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좌절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닌 희망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학교 문화 창조운동'은 학생을 구한다는 각오와 심정으로, 또한 국가의 장래를 구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도내 모든 교육가족들이 총력을 기울여 목적인 바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학교 문화 창조운동'이 학교 현장에 꽃피워질 때 학교는 즐거운 학교로 바뀔 것이며 그 속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이 육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명문 대학에 합격하고 보자는 그릇된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대학입시를 무시험 전형으로 바꾸고, 능력 중심 사회를 조성한다고 하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가 될 때 고액과외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촌지가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직은 인간을 기르는 사업입니다. 정직과 준법, 인격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 대가를 개인적인 금전으로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자식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여라도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모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참여여야



- ◎ 전북 군산 출생
- ◎ 군산중 · 서울 양정고 · 전북대 철학과 졸업
- ◎ 원광대 교육대학원 국민윤리 석사, 교육학 석사
- ◎ 군산여상 교사
- ◎ 군산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 기획관리실장
- ◎ 전국 전문대 유아교육과 협의회 이사
- ◎ 전북 제 1·2대 민선 교육위원
- ◎ 제12대 전라북도 교육감(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촘치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거론 되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교육계에 몸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윤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사회의 변명과 민주화를 이루는 큰 길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재를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계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11년, 전문대학에서 10년을 교수로 근무하고 1·2대 교육위원을 거쳐 교육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평생을 지켜오신 좌우명이나, 교육자로서 지켜오신 교육적 소신이 있으시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

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역사사지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사사지면 인화요, 인화면 만덕성이라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인화가 가장 중요하고, 인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건협 전라북도지부는 미래의 희망적인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북도, 더 나아가서 전국의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명실상부한 공익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검진능력을 배양해 주시고, 항상 연구·개발하는 모습으로 도내 학생건강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와 더욱 성숙된 시민으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도모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생 건강증진 유지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함을 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평소의 건강생활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교육감이 된 후에는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특별한 운동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고 휴일이면 등산과 사우나로 건강과 컨디션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국민에게 바라고 싶으신 점**

교육 문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일의 국가사회 발전은 오로지 오늘의 청소년 교육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국가적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